

3월 Market Index			
코스피	5791.91	코스닥	1137.70
	(-452.22)		(-55.08)
금리	3.180	환율	1468.55
	(+0.139)		(+28.85)

metro 경제



韓·亞 증시 급락... 중동發 '검은 화요일'

하루 낙폭 452.22p 역대최대 5791.91 마감, 시총 4769조 100대 기업 중 88곳 하락 英·獨 등 유럽시장도 하락세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증가가 나타나 있다. /뉴시스

공포가 시장을 잠식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흔들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시장의 주가가 녹아내렸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만전자'와 '100만닉스' 타이틀을 반납했다.

3일 아시아 증시는 문을 열자마자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3거래일 만에 '6천피(코스피 6000)'를 내렸다. 하루 낙폭도 역대 최대인 452.22포인트(-7.24%)에 달했다. 시가총액도 5000조원(4769조원)을 내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2.98(16.37%)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4.62% 떨어졌다. <관련기사 2·3면>

검은 화요일이 휩쓴 시장은 초토화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우선주 포함)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83%)와 한화시스템(29.14%), 현대로템(8.03%) 등을 제외한 88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9만5100원(-9.88%), 93만9000원(-11.50%)까지 밀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11%넘게 급락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건 국내 증시만이 아니다. 일본 닛케이(-3.06%)와 대만 가권지수(-2.20%)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 지수, 홍콩 항셱지수 등도 약세를 보였다.

전날 유럽 시장도 중동발 리스크에 녹아내렸다.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 유가는 뒤흔들었다. 이날 ICE선물거래

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올랐다.

시장에 불안이 번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은 강세를 띠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311.60달러로 전장 대비 1.2% 상승했다. 반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

04%로 전 거래일 대비 8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원화값은 달러당 1466.1원(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26.4원 떨어졌다.

금융 시장에 휘몰아친 '퍼펙트 스톰(여러 약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 커지는 현상)'의 도화선은 이란을 둘러싼 중동발 리스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지나간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에는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동 분쟁 격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중견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문이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허정운·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韓-필리핀, 방산 등 협력강화

李-마르코스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로 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났다. 양국 정상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된 이날,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마닐라 빌라모어 군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났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했다. <관련기사 6면> 말라카냥궁에 도착해 공식환영식과 방명록 서명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소인수·확대 회담, MOU 교환식을 가졌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필리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미국·대만·영국·프랑스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한국전쟁에 7420여명을 파병한 전통 우방국이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과는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오래 유지해온 나라기도 하다. 한국은 필리핀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최근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산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syj@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절차 2개월 연장

MBK, 긴급자금 1000억 투입 DIP대출·SSM 매각 등 예상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시한부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만에 기간 연장이나, 청산 결정이나의 갈림길에 섰던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5월 4일까지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년 동안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및 매각주

간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규정상 회생계획안은 개시 후 1년 이내에 인가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여부 결정은 4일이 마지노선이였다. 기업회생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급한 불을 끈 홈플러스는 오는 5월 3일까지 DIP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 매각, 지점 정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초안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부실 점포 41개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 지원 약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MBK파트너스는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관련해 4일까지 500억원, 오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연장 시 추가로 100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조건부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음 과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매각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매각 여부가 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한동훈, 국민 앞에 속죄해야...윤석열과 공동 죄인" 윤상현의 일갈
▲ 이준석 "국힘, 판결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사법부 지키기' 투쟁은 모순" /사진 뉴시스

▲ 부산 출신 황중우 해수부 장관 후보 "부산을 해양 수도로"
▲ 이정현, 현역 단체장에 "단수공천 기대말라... 선거 절박하게"

▲ 국민의힘 조길형 전 총주시장, 충청북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 선언
▲ 'TK통합법' 평행선...송언석 "與 몽니" 한병도 "충남·대전도 해야"